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

-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8-5 아브라함 -

창세기12:1-4, 히브리서11:8-12

정운돈 목사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며 예배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여 오만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응답의 주역,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창세기는 4사건과 4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4명의 인물 중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 이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5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이름에는 전도와 선교가 포함되어 있다. 영적인 근원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약 4,100년 전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우르이다. 한 역사학자는 우르가 상업,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한 고대문명지이며, 위상승배가 성행했다고 표현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이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보내셔서 언약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요 선교의 방법이다. 부인인 사라가 90세, 자신이 100세 일 때 이사를 낳았다. 그는 175세로 헛 족속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막벨라의 뜻은 ‘이중 동굴’이다. 그래서 이 동굴에는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되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민족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스라엘 국가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은 복음적인 선택이었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모든 삶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었다.

1. 먼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창세기 3장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죄와 허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날마다 그

리스도해야 한다.

(1) 그의 잘못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나올 때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다. 자녀가 없어서 조카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인본주의로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 결과로 롯의 후손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겨났는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다.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후대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저주와 재앙을 끊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2)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두 번이나 자기의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다. 한 번은 바로 왕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①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② 창세기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 را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 را를 데려갔더니’

(3) 아브라함은 위상승배라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위상을 섬겼다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2. 두 번째로 이렇게 실수도 있었고 위상승배의 영적인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세였더라’ 복음으로 체질되시기를 바란다. 복음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복음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목자들이 다룰 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반성을 하고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어야 한다.

(3)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과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여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 이때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고 대신 준비해두신 숫양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4)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해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는 할례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아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있다.

(5)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부활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다.

(6)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 건 헌신을 한 종직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재산과 롯을 다섯 명의 왕들의 손에서 건져 내었다. 목숨을 걸고 갔지만 실패없이 간 것이 아니다. 가병 318명이 다섯 명의 왕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병은 캠프팀이다.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싸우고 흑암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분들은 3서밋, 인턴십, 봉사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7)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요한 시간표마디에 단(예배)을 쌓았기 때문이다.

① 세겜에서 축복을 받자 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하신다.

② 벧엘에서 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8절이다.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이다.

(8) 아브라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한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네(소돔왕)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왜 대가를 받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우상으로 타락한 도시인 소돔의 더러운 재물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다.

(9)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의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15장 6절이다. '아브람이 여호와의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0)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노아와 셈을 통해서 전달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방주의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우상도시인 우르에서 복음을 선택하여 그곳을 빠져 나왔던 것이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테반 집사의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난 것은 아버지인 테라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음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와 셈이 전해준 복음의 언약을 잘 붙잡았기 때문이다.

3.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모든 성도들과 램넌트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 드린다.

(1)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5대 축복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것은 대표적, 기념비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시대적인 축복이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대표적)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기념비적) 너는 복이 될지라(근원적)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불가항력적)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시대적) 하신지라'

(2)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후대 번성의 축복을 받았다. 크게 두 가지로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이다. 창세기 22장 17절이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3)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대에서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2장 17절이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

(4) 후대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다. 씨는 단수이다. '또 네 씨(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5)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어 물질적인 복과 후대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 하였더라',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CVDIP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최고의 언약의 여정은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선택한 언약의 여정일 것이다.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2. Vision, 비전이다. 237나라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과 축복을 설명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그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3. Dream, 꿈이다. 24시간 바라봐야 할 우리의 꿈은 우리 가문과 후대가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시간표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서밋타임에 조금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 주실 것이다. 기도제목을 적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란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배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음과 준비된 많은 언약적 축복과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